로컬플러스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 기업사랑·기 살리기 현장행정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이 25일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선박블럭 제작업체 ㈜벤투스 방문을 시작으로 기업사랑·기업 기(氣)살리기를 현장행정을 펼친다.

군산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매주 1회 기업현장을 방문해 각종 시책설명과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기업사랑 4대전략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벤투스(대표 이규호)는 조선 경기의 수주 물량 감소로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와 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실버자치경찰대 발대식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8기 익산실버자치경찰대 발대식이 25일 익산경찰서 5층 대동마루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의 발대식은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자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변화를 한층 더 유도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다.

총 46명으로 이루어진 실버자치경찰대원들은 익산시 내의 4곳의 지구대(중앙, 부송, 평화, 신동)로 나뉘어져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폭염기간 8월 제외) 근무하게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나포작은도서관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식

군산시 나포작은도서관(운영자 이병숙)이 지난 22일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식을 가졌다.

나포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 주관 '2015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100만원의 포상금과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을 수여 받았다.

나포작은도서관은 강사 및 재능기부자, 주민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연극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수협-자망협회 풍어제 갈등

서로 개최하겠다고 맞서…행사 양분 예산낭비 우려

한 해 동안 어민들의 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두고 군산수협과 자망협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마다 이만 때면 군산 관내 어민들과 수산관련 종사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풍어의 행운을 빌며 갈등과 불신이 없는 한 해를 소망하고 안전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왔다.

하지만 올해 풍어제는 군산수협과 자망협회가 서로 유치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자칫 군산시 업종 간 어민들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양분된 행사로 인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군산수협은 다수의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풍어제를 자망협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올해부터 수협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풍어제를 16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망협회는 군산시와 수협의 지원을 받아 지난 7년여 간 행사를 진행해 왔던 만큼 오는 27일 비응항 일원에서 풍어제를 단독으로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수협의 방침에 대해 자망협회측은 수산물 위판조차도 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망협회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주최해온 풍어제를 신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빼앗아가려한다"면서 "특히 행사 장소마저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자망협회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수협에 위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수협 관계자는 "업종별 연합회의와 어촌계장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수의 어민들이 수협에서 주관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한해의 무사 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인 만큼 군산시 전체 수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 수협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풍어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주관단체인 자망협회에 군산시는 440만원, 수협은 500만원의 행사비를 보조해왔다.

군산=문정곤 기자

금강 가창오리 군무에 탐조객들 몰려

30만 마리 이상 내달 초순 철새들 이동시기까지 즐길수 있을 것으로 예상

본격적인 철새들의 이동시기를 앞두고 금강을 대표하는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영명 Baikal Teal)의 화려한 군무가 금강의 하늘을 수놓고 있어 막바지 탐조객들이 몰리고 있다.

25일 철새조망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이후 확인되기 시작한 가창오리의 수가 30만 개체 이상으로 3월 초순 철새들의 이동시기까지는 가창오리의 군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가창오리는 시베리아로 이동을 앞두고 서해안 고속도로 금강대교와 나포면 십자들녘을 중심으로 먹이활동과 휴식에 여념이 없다.

특히 해질 무렵 군무를 보기 위해 나포면 십자들 지역은 수백 명의 탐조객과 사진작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황병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가창오리가 낮에도 십자들녘으로 날아들어 먹이활동을 할 만큼 이동을 위한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다"며 "철새조망대에서는 가창오리를 비롯한 철새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먹이 살포와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 예산 5억 1,100만원 확보

익산시는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에 올해 5억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이란 태풍이나 우박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가입신청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능하다.

벼를 포함해 43개 품목에 대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 25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실수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원예시설농작물 재해보험은 11월30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익산시 재해보험 가입자는 1,737농가에 3,956ha로 매년 보험가입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의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지방비 부담률을 77%에서 80%로 높여 지원한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의 부담률이 23%에서 20%로 낮아졌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재해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강윤미 한약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약학대학 한약학과가 제17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제17회 한약사 국가시험에는 총 138명이 응시해 평균 89.9%의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원광대 한약학과는 96.1%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강윤미(사진) 씨가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1996년 개설된 원광대 한약학과(학과장 이은주)는 열일곱 차례의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수석 10회, 100% 전원합격 8회 등 뛰어난 성적을 올려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 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전체 수석졸업으로 학업 최우등상을 수상하기도 한 강윤미 씨는 "열정과 믿음을 갖고 즐겁게 공부해 수석합격과 수석졸업이라는 기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그동안 공부하는 범위의 목차를 써보면서 내용의 흐름과 연관성을 파악하고, 직접 쓰거나 이동하면서 암기하는 방법 등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과 교수님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실험연구를 진행하고,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약사로 성장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단기연수 실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해외 우수 산학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LINC사업단 주관으로 '글로벌인재양성 해외단기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준섭(기계자동차공학부 3년) 학생을 비롯한 28명이 지난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에 있는 미국 서부 유수 대학 및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다.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22개의 LINC 사업 참여 학과에서 추천을 받고, LINC 사업단 산하 각 센터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됐으며, New Star Realty Group 본사와 농심아메리카, UC버클리, 실리콘밸리 내 구글, 인텔, 페이스북과 에어비앤비, 깃허브 등 기업 및 기관연수를 비롯해 세계 최대 첨단 광전자 산업 전시회인 SPIE 박람회를 돌아봤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통합사례회의 서 복지대상자 문제해결 논의

익산시는 지난 24일 시청 홍보관에서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복지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통합사례회의란 복지대상자와 관계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협의하여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연계 방식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A씨의 사례는 처의 가출로 인한 자녀 양육 및 경제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입이 시작되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모인 통합사례회의에는 기초생활과, 여성보육과를 비롯하여 익산경찰서,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익산보건소에서 참여하여 위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